



「사랑의 손길」은 '천주교 서울대교구'와 '한마음한몸운동본부'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.

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지구촌 빈곤 퇴치 사업

“ 방글라데시 나자렛
초등학교 아이들에게
희망을 선물해주세요! ”



안녕하세요.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
외방선교수녀회 소속 마리피앗 수녀입니다. 현재 저는 인
도와 네팔 국경 근처의 방글라데시 최북단에 위치한 디나
지푸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. 이 지역은 가난한 방글라데
시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으로 손꼽히는 외진 곳입니다.

그만큼 어려움이 많았지만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
이었기에 저희 수도회에서는 2011년부터 마을의 조그만
집을 빌려 공부방을 시작해, 현재는 작지만 초등학교의 모
습을 갖추어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.

학교 운영 초기에 아이들 면담을 위해 아이들의 가정을
방문했을 때 한창 자라날 나이의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
해서 공부느커녕 활동하기도 어려울 만큼 야위어 있던 모
습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.

그래서 어린 시절 가난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기억하
고 본받고자 학교 이름을 '나자렛 초등학교'로 짓고, 이 지
역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그들의 힘겨운 삶을
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전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
생계를 위해 매일 일을 해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가정
이 대부분인 데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든 시기
를 보내고 있기에,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쌀이나 도시락을

제공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.

‘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제 아이를 제발 받아 주세요.’

자신들의 아이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면서
도움을 청하는 부모들을 달래 돌려보내는 일이 이제는 거
의 일상이 되었습니다. 학교를 다니고 싶은 아이들은 많지
만, 교실이 부족해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

학교의 안과 밖에서 이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다 보니 가
난한 삶의 고단함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. 하지만 지치고
힘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 또한 아이들의 웃음이었고,
그 아이들 속에서 만난 예수님이었습니다.

선교사는 어느 상황에서나 기쁘게 살아가는 하느님의
마음이자 손과 발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. 나자렛
초등학교 아이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교육의 기회에서 멀
어지지 않고 마음껏 공부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여러
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.

마리피앗 수녀 | 한국외방선교수녀회

* 모아주신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**방글라데시 나자렛 초
등학교**에 지원되어 영양 급식 및 도시락 준비와 4개 교실 증축에 사용될
니다(약 4천만 원(\$35,000) 지원예정). 총 사업비를 초과하여 모인 후원금은
본부의 '지구촌 빈곤 퇴치 사업'에 지원됩니다.

후원계좌 | 우리은행 1005-180-003488 (재)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
2021년 5월1일~6월11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
'방글라데시 나자렛 초등학교'를 위해 쓰여집니다.

서울주보 홈페이지(cc.catholic.or.kr)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. 기부는 소독
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, 기부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
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.

